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전문가 집단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ies for Activating Book-reading Environment

- On the Basis of In-depth Interviews of Expertise Groups -

김 선 남 (Kim, Sun-nam)**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 2. 이론적 배경 | 4. 연구결과 |
| 2.1 독서관련법 | 4.1 낮은 독서율의 원인 |
| 2.2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 | 4.2 독서문화 활성화 방향 |
| 2.3 언론의 독서운동 | 5. 결 론 |
| 2.4 출판 관련 단체의 독서운동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을 살펴보고, 독서문화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은 여가시간의 부족, 독서 습관의 일상화 부재, 경쟁 매체의 우월한 지위, 양질의 독서 콘텐츠 부재, 학교나 부모의 역할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 출판관련단체, 서점, 도서관, 부모, 언론등은 지속적으로 독서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확대, 도서관의 인적 및 물질적 인프라 구축, 전국 규모의 독서운동,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책 홍보와 PR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要語: 독서문화, 독서운동, 심층인터뷰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sunkim@wonkwang.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leading to the lower level of Korean book-reading rate, while searching for the strategies needed for activating book-reading environ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in-depth interviews implemented toward expertise groups. The analysis showed several critical factors related with the lower level of Korean book-reading rate. They included such factors as the shortage of leisure time, the absence of book-reading habits, the dominance of competing media, the lack of qualified reading contents, and the neglect of parents and teacher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never-ending national book-reading campaign, especially hosted by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publishing organizations, libraries, teachers and parents, and media journals, would be a stepping stone for activating book-reading environment. Several expertises argued that the national book-reading campaign would be more productive when it could be supported by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libraries and their infra-structures, the repeated book advertisements and PR's through major news media, and the cultivation of book-reading habits.

Key words: book-reading environment, book-reading campaign, in-depth interviews

1. 서론

2010년 정부와 출판 관련 단체는 독서관련법을 정비하고 독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선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교사·학부모·언론·시민단체(예, 학교도서관운동네트워크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¹⁾ 예를 들면 ‘문화일보’, ‘문화관광부’ 등은 <다시 책이다> 캠페인을, ‘한겨레신문사’, ‘삼성사회봉사단’,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등은 <희망의 작은 도서관> 이벤트를, ‘국민일보’, ‘대한출판문화협회’, ‘아침독서추진본부’는 <책은 내 친구-학급 문고 보내기> 캠페인을, ‘조선일보’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 독서운동은 독서량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2002년에는 TV와 신문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아침10분독서운동(2006)’이 국민의 독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²⁾ 또 ‘학교에서 아침독서시행(2009)’은 학교 독서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독서량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독서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한국인의 독서시간은 여전히 주당 3.1시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세계 30개국 평균(국가별 평균 독서 시간은 주당 6.5시간)보다 낮은 것이다.⁴⁾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낮은 독서율은 다음의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이 독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둘째, 기존의 독서운동은 주로 학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독서운동이 거의 없다. 즉 독서운동이 성인을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성인이 매우 낮은 독서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TV나 뉴미디어 활용으로 잠식되어 버린 독서문화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지향적인 독서운동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1) 『경향신문』, 2010년 3월 9일.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출판연구소, 2006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06), 19.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 200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09), 27.

4) 위의 책(2009), 20.

‘독서’는 남은 여가시간을 채우는 취미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 기반, 사회의 생존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⁵⁾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낮은 독서율의 원인을 살피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서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관련법

독서문화진흥법(2006. 12. 28 공포, 2007. 4. 5 시행)은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이는 출판계를 비롯한 도서관, 독서운동단체의 독서운동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도서관법(2006. 10. 4 제정), 저작권(2006. 12. 28 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01. 7. 19 제정), 인쇄문화산업진흥법(2007. 7. 19 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6. 5 제정), 문화예술진흥법(2008. 2. 29 제정) 등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독서생활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⁶⁾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독서진흥정책의 범위와 구체성 측면에서는 진취적이고 진화된, 세계적 수준의 법률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⁷⁾ 다음의 한계점을 안고

5) 백원근,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9 출판문화포럼 자료집』 (서울: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 2010), 38.

6)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독서진흥을 위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7.

7) 백원근, 앞의 논문(2010), 40.

있다 첫째, 법안의 강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석범은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 책무가 선언적이고 권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예, 노력해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 실효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⁸⁾ 둘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특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원경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예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한 바 있다.⁹⁾ 김영석은 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수를 2011년까지 800관, 2013년까지 900관의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실효성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⁰⁾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독서활성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원경에 의하면 지자체의 경제적 여건, 독서에 대한 문화적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격차는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¹¹⁾ 넷째, 독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정책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독서프로그램은 강좌, 독후감 대회 등 친편일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향후에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¹²⁾

2.2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각종 문화 활동과 독서운동으로 통하여 독서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독서활동에는 현장학습(1일 독서교실), 독서회, 독서교실, 독서치료 등과 같은

-
- 8) 이석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전개와 개선방향,” 『도서관문화』 제48권 9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47.
 9) 한원경,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현장적합성 검토,” 『도서관문화』 제49권 8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28.
 10) 김영석, “독서 및 도서관 진흥정책과 지역사회발전-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 증진,” 『도서관문화』 제50권 7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9), 64.
 11) 한원경, 앞의 논문(2008), 29.
 12) 백원근, 앞의 논문(2010), 44.

프로그램과 ‘한 책 한 도시’ 운동,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운동 등이 포함된다. 현장 학습은 교사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¹³⁾ 독서회는 독서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며 독서토론을 통하여 분석력과 어휘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¹⁴⁾ 독서교실은 308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는 도서관 이용법, 독서자료 선택법, 독서법, 독후감 감상문 쓰기 및 독후감상화그리기, 독서 퀴즈대회, 인터넷 사용법, NIE(신문활용교육), 향토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⁵⁾ 독서치료는 책과 독자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도와주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성인을 위한 독서치료 강좌는 의정부도서관, 과천시립정보과학도서관, 수원 슬기샘 도서관에, 주부 문학치료프로그램은 의왕시립도서관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은 분당문화정보센터에 개설되었다.¹⁶⁾ 일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독서퀴즈, 독서 캠프 등을 운영하며,¹⁷⁾ 일반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지식기반 시설이자 문화시설 이미지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¹⁸⁾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은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프로그램이 행사 지향적이거나 여러 도서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2.3 언론의 독서운동

독서의 대중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1년 MBC-TV의 ‘느낌표’의

13) 조미아,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 『국회도서관보』, 제342호 (서울: 국회도서관, 2007), 36.

14) 위의 논문, 36.

15) 위의 논문, 67.

16) 조미아, 앞의 논문(2006), 40.

17) 위의 논문(2006), 46.

18) 황금숙,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민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68.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MBC-TV ‘느낌표’ 프로그램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적의 도서관’ 사업도 어린이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 독서운동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방송의 ‘도종환의 책과 함께 하는 세상’, ‘책 읽어주는 여자’, ‘밑줄 그어주는 남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¹⁹⁾ 문화일보(1996) <북리뷰>에서 시작된 신문의 책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1999), 동아일보(1999), 중앙일보(2000)의 지면 할애로 이어졌다. 종합일간지는 매호당 평균 30-40종 내외의 도서소개와 10여종의 서평으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언론에서 다루어진 책들은 높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다.²⁰⁾

그러나 언론의 독서운동은 독서습관화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²¹⁾ 베스트지향적인 독서문화를 양산하였다는 점, 특정한 출판사나 작가에 편중됨으로써 획일화된 독서산업을 구조화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²²⁾

2.4 출판 관련 단체의 독서운동

출판업계 및 시민운동단체들 역시 독서운동에 적극적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계의 권익옹호 및 독서인구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서울국제도서전, 책의날기념식, 한국출판문화대상, 한국도서해외진과사업, 올해의 청소년 도서, 한국 어린이 도서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은 언론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19) 성동규, 서보윤, “독서활성화를 위한 영상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연구-영상미디어화된 출판물의 독서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43호 (서울: 한국출판학회, 2001), 205.

20) 백원근, “매스컴의 독서정보 의제설정과 출판 발전 방안-방송 독서 프로그램 및 일간지 북 섹션을 중심으로,” 『제11회 한국출판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45.

21) 황금숙, “신정부의 독서문화진흥정책을 위한 제안,” 『국회도서관보』 제5호 (서울: 국회도서관, 2008), 63.

22) 김재운, 이권우, 표정훈, “한국 신문의 북 리뷰 지면과 ‘서평,’” 『보도비평 신문의 북 리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2), 17.

독서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적의 도서관(MBC느낌표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진행한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사업), 북스타트 운동(북 스타트 한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유아기의 책과 친해지게 하는 운동),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운영(도서 저소득 주민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함양운동), 책날개 산업(소외된 지역 아동을 위한 문화 체험과 그림책 보내기 사업), 작가와의 만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희생프로그램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작가와의 만남 주선)등의 사업을 벌였다. <아침독서운동>은 아침독서신문 발간, 각종 자료집과 단행본 발간, 아침독서용 학급 문고 보내기, 아침독서 홍보작업,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은 전국독서토론대회, 교과별 추천도서목록개발사업, 독서지도사과정 개설, 독서논술인증제실시, 작은도서관운동, 신문방송과 연대한 독서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한우리 독서문화 본부>은 독서대학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술문화사업(독서에 관한 연구발표회, 세미나, 논문, 백일장 개최 등), 해외에 서적 및 책자 보내기 운동, 독서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검정 등 독서 진흥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주도하는 독서운동은 일부 단체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소모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³⁾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낮은 독서율의 원인을 검토하고 독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독서율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독서문화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위하여 본 연구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양적 설문

23) 김봄피, “독서운동을 통한 독서진흥에 관한 연구-출판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63.

조사 보다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심층 인터뷰가 단순한 답변 이외에 응답에 관련된 의견과 동기, 평가와 해석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관찰하고 연구주제에 관한 답을 연구대상자들의 일방적인 경험과 사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거하여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얻었다. 특히 본 연구는 낮은 독서율의 원인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정부, 출판유관단체, 도서관, 서점, 언론 등)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0년 3월 20일에서 3월 3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출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 피험자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총 10명으로 제한된 수였지만 출판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들은 출판기획, 편집, 제작, 영업,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서	이름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근무년수
1	가	여	40대	대졸	출판편집	9년
2	나	남	30대	대학원졸	출판제작	10년
3	다	남	30대	대학원졸	출판기획	5년
4	라	남	30대	대졸	출판영업	3년
5	마	여	40대	대졸	작가	7년
6	바	남	30대	대재	출판기획	9년
7	사	남	30대	대학중퇴	작가	9년
8	아	남	30대	고졸	출판영업	11년
9	자	여	30대	대졸	북디자이너	13년
10	차	남	40대	대학원졸	출판기획	10년

24) 손승혜, “글로벌 텔레비전 시대의 수용자 능동성-심층 인터뷰를 이용한 한국의 초국가적 위성방송 시청자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46-2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2), 135.

4. 연구결과

4.1 낮은 독서율의 원인

4.1.1 여가시간의 부족

응답자들은 낮은 독서율의 원인으로 ‘여가시간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는 성인의 경우 바쁜 사회생활에서,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사회 성인들은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자신만을 위한 여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짬이 나지 않는 겁니다. 미혼인 경우 독서보다는 영화나 게임이나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1가)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독서가 싫어서가 아니라 독서를 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2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제 생활과 업무 그리고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에 얽매어 있는 성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급급함이 지식의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독서에 관련된 시간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4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해 바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여유가 생겨도 휴대기기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즐기며 곧바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합니다.”(10차)

“지금의 교육현실 내에서 청소년들은 ‘독서’ 라고 할 만한 시간을 갖기 어려우며,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성적의 손실을 의미할 겁니다.”(5마)

이렇듯이 독서는 사회생활이나 경제행위에 보탬이 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었다. 즉 독서는 돈벌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인해서 외면되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의 경우는 입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등한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진이나 업무 관련 일에 몰두 하다보면 독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독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1가)

“중산층과 서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코피 터져 가면서 촛불 켜놓고 책을 펼쳐보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력에 지쳐 책을 펼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다)

“최근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생각하는 등의 활동보다 가볍고 쉽고, 단순하게 위안 받거나 즐길 수 있는 꺼리로 관심과 노력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5마)

“입시 위주의 학교 공부와 선생님들의 획일적인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주입됩니다.”(6바)

4.1.2 독서 습관의 일상화 부재

응답자들은 낮은 독서율의 원인으로 독서 습관의 일상화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들은 독서의 심리적인 욕구 및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독서를 습관적으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3다)

“독서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2나)

“독서도 일종의 습관으로, 어릴 때부터 책과 자주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에 이르러서도 독서활동이 생활과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억지로’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식이란 어려울 것이고,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부

터의 독서환경과 습관이 중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5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독서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여 독서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제합니다.”(6바)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거라고 여겨지고요.”(8아)

응답자들은 독서문화의 심리적 욕구 및 물리적 환경조성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4.1.3 경쟁 매체의 우월한 지위

응답자들은 낮은 독서율의 원인으로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게임 등 다른 매체의 의존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매체적 속성, 예를 들면 이용편리성, 휴대성, 재미, 유용성, 콘텐츠의 다양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보다 재미있는 자극을 주는 텔레비전 프로나 컴퓨터 게임도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터넷 게임은 재미있지만 독서는 심심하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책보다 휴대하기 편한 기기도 많아지고 무가치처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늘어나다보니 따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1가)

“IT발전에 의한 정보습득 방법의 다양화, 놀이문화의 다변화, 멀티미디어 기기의 소형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등의 이유로 책을 접할 기회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나)

“인터넷사회의 발전과 게임 산업의 확대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이외에 접할 수 있는 환경 중에 바로 이러한 컴퓨터와 관련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4라)

“예전에는 TV와 책을 통해 주로 정보를 얻었으나 최근에는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감성에 대한 면들이 인터넷 등의 대중문화 확산으로 인해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의 경우에도 최근 사극이 많이 제작되어 방영됨에 따라 책을 구매해 보기보다는 편하게 사극만을 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7사)

이와 같이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경쟁매체의 경제적 특성 즉 저가의 이용료 또한 낮은 독서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책값에 비하여 경쟁매체의 이용은 저가인 셈이다.

“컴퓨터·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책보다 휴대하기 편한 기기도 많아지고 무가치처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늘어나다보니 따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1가)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주고 책을 사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10차)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달로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에 신경이 쏠려 차분히 책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저가입니다.”(6바)

4.1.4 양질의 독서 콘텐츠 부재

응답자들은 낮은 독서율로 독서 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들은 최근 출판문화가 팔리는 책, 혹은 베스트셀러 위주의 독서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 양질의 독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양장본, 책 표지의 고급화 등등 내용보다 외양에 치중을 지양해야 합니다. 콘텐츠에 충실해야 합니다.”(1가)

“베스트셀러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주요 내용이나 줄거리가 다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책 내용을 요약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다. 그런데 다이제스트 축소판 내용들은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작과는 거리가 먼 축소판들이 원작의 글맛을 떨어뜨려 독자들이 책 내용을 해독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1가)

“사회차원에서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이 전혀 가치를 얻지 못하고, 경쟁중심의 사회풍토로 인한 자기계발 및 실용서 열풍으로 다양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서의 형태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성인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독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7사)

응답자들은 일부 출판관련 조직이나 언론기관에서 선정하는 독서목록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독서 문화 나아가 해악의 독서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기관이나 대학에서 필독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독서에 흥미를 갖기 전에 자신의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먼저 읽게 되면 독서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해로운 내용의 책이 선정될 경우에는 해악이 매우 커집니다.”(10차)

4.1.5 학교나 부모의 역할 부족

응답자들은 낮은 독서율의 원인으로 학교나 부모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이들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에 초점을 두으로써 독서의 생활화, 습관화를 조성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독서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미비합니다. 또한 대학을 가기위한 입시 위주의 공부방법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힘들어해 책 보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습니다.”(3다)

“학교의 역할부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적지상주의 및 사교육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독서를 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부모들은 모두 사회생활과 생활비 마련에 몰두하다 보니 가정에 학생(아이들)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듯 학생들이 책을 읽을 환경을 만들어주기 힘들게 보입니다.”(4라)

“입시 위주의 학교 공부와 선생님들의 획일적인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주입됩니다. 공부가 제일이라는 부모님의 강요 또는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봅니다.”(6바)

“초·중·고 12년 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하에서 학생들은 학교차원에서 암기식 교육과 학원 등의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게임 등 기타 외부에 대한 의존 심화 등으로 독서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무엇보다 초기에 올바른 독서 교육과 습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 차원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독서에 대해서 고전이나 문학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많습니다.”(7사)

따라서 이들은 학교교육, 부모교육에서 독서하는 문화를 배양해야할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책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강건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 아이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이 책에 다가서게끔 도와주는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8아)

4.2 독서문화 활성화 방향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출판유관단체, 서점, 도서관,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4.2.1 정부의 역할

응답자들은 정부가 독서 캠페인의 주체가 되어 독서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정부차원에서 공익 광고로 책 읽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합니다.”(1가)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축제에 도서에 관한 문화 코너를 만들어 공개하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지역차를 줄여서 전국 어디에서도 책을 쉽게 접하고 맘껏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6바)

“국민 1인당 연간 일정도서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등을 발행해 준다면 더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7사)

응답자들은 정부가 공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독서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독서시간을 넣고 독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상장과 장학금을 책만 구입할 수 있는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1가)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성과지향성 보다는 목표지향성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토론 시간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사회성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나)

응답자들은 정부가 다양한 방법(세제 개편 및 육성정책)을 통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각 구청 건물이나 근처에 규모 큰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한 개씩 만들도록 하고 이들 도서관과 시골 학교에 정부 차원에서 출판사의 양서를 선정·구매하여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1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서점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형서점, 중고서점들을 유지시키고 증설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나왔으면 합니다.”(2나)

“콘텐츠의 원 저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글쓰기만을 하는 필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콘텐츠

를 만들 수 있는 저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접는다면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7사)

“도서관을 많이 늘리고 사서의 질을 높이는 데 연구를 강화하고 도서관 내부 시설 및 장서를 늘리는 데도 힘쓰며, 독서 욕구를 높이는 교육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책값을 내리는 지원정책에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9사)

“공공기관을 짓거나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독서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초·중·고교에서도 독서공간을 반드시 구비토록 하고 독서시간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해야 합니다.”(10차)

“출판 산업에 대한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영화 등의 2차 산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출판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대해 벤처산업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문화복합단지 등을 조성하여 출판사, 북카페, 문화예술강연 및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10차)

4.2.2 출판유관단체

응답자들은 출판유관단체가 독서문화 캠페인의 동참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철 안에서 책 읽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독서를 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1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서관, 시골 산골짜기 지역에 도서 기증, 또는 도서 수익금을 독서 장려정책 지원 사업에 기부, 독자가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책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3다)

“도서전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고 매월 독서의 날을 지정하고 독서 진흥 관련 세미나나 책 읽기 캠페인이나 이벤트 등도 확대 개최해야 합니다.”(10차)

응답자들은 출판사가 양질의 독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도 강조하였다.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독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양장본, 책 표지의 고급화 등등 내용보다 외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콘텐츠에 충실하여 책의 정가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1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경쟁하며 이윤 추구에만 연연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출판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출판업계에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2나)

“출판사는 책을 단순히 파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상품으로 생각하고, 기획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즉 학생, 청소년, 직장인, 학부모,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쉽게 양질의 책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꾀해야 합니다.”(7사)

“중요한 것은 책이 구현할 수 있는 허울만 반지르르한 외피가 아닌 보이지 않고 소박하지만 실직한 힘, 그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8아)

응답자들은 출판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출판유통 구조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유통 경로를 보다 단순화하고 현금결제 방식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7사)

응답자들은 제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출판 관련 인계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질 높은 콘텐츠를 양산하기 위한 인재 발굴에 힘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나)

“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보다 그 책을 읽고 보다 큰 사람을 만들어 내는 데에 가치를 둔 출판유관단체와 그곳에 적을 두고 있는 구성원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8아)

“출판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출판관련 학과를 많이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에 비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만드는 출판학과는 너무나 미미합니다.”(10차)

4.2.3 서점

응답자들은 서점이 독서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고객관리를 강조하였다.

“독서 이벤트를 벌여서 교양도서를 많이 구매하는 사람에게 특별할인 정책을이나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도서를 구매하면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겠고, 백화점 정기세일 때 같은 할인쿠폰 복을 만들어서 해당 책을 사면 할인이 되는 정책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만 광고 문구 붙이지 말고 다양한 책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문제집 옆에 교양도서를 배치하여 자연히 문제집과 함께 시선이 가도록 배치하면 좋겠습니다.”(1가)

“지역 서점에서 생존 할 수 있는 특성화 서점을 만들어 판매(인문전문, 법학전문서점, 영어전문서점, 철학전문서점, 사회과학전문서점 등)해야 합니다. 서점은 책을 팔 수 있는 고객관리에 힘써야 합니다.”(3다)

“대형서점과의 경쟁이 어려운 소규모 서점의 경우, 지역 나름의 각각의 마케팅 전략 모색을 통해 단순한 책 판매, 학습참고서 판매점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문화전달체로서 개성과 역할을 자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예를 들어 어린이 책 전문점이라면 단순히 어린이 책 판매만이 아니라 동화 이야기 시간 등의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거나, 소규모 서점의 경우 소규모 문화공간-지역 내 작가를 포함한 독서모임, 토론회 등의 기회마련, 간단하게나마 책을 볼 수 있을 장소제공 등).”(5마)

“마케팅 측면에서도 세일기간이나 이벤트를 마련하고 회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판매촉진활동에도 노력해야 합니다.”(10차)

응답자들은 ‘서점’을 기존의 책을 파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나아가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음의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점은 책을 파는 개념을 넘어서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고 싶어지는 서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유 시간에 가보고 싶게 하는 서점, 책 진열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넉넉히 늘리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함께 붙어있는 서점 등으로요.”(6바)

“서점은 도서를 파는 것이 아닌 문화상품을 파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어느 서점을 가도 매장 구조는 결국 비슷하게 친편일률적입니다. 판매순위에 따른 도서 진시, 수익 극대를 위한 복합매장, 그 어느 곳에도 다양한 도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만 구입하거나 진열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도서에 대한 추천 기능, 강연회, 문화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관련 상품을 제시해야 합니다.”(7사)

“서점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네서점은 목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점이 문화공간이 되도록 북카페 등의 형태로 변모해서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독자들이 쉬면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10차)

응답자들은 독서문화에서 서점의 도서 선택 및 배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점 종사자들도 문화산업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베스트셀러 책들만 갖추지 말고 양서 위주로 진열하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비해야 합니다.”(10차)

“고객이 책을 선정하기 위한 쾌적한 독서 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가능하면 도서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주시켜 서비스기회를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책을 선정하는데 편의를 주는 인터넷 서점(아마존)에서 책을 구하는 것 못지않은 시스템도 개발하는 것도 서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9자)

“책의 정보를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는 책에 대한 판매지수나 서평 내용 등을 게시함으로써 책의 정보와 품질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리는데 비해 오프라인 서점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10차)

4.2.4 도서관

응답자들은 독서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특히 이용자 중심적인 도서관 운영 체재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응답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 대여 기간을 이용자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책 종수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신간도 말 빠르게 도서관에 들여놓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서관협회 등등 도서관 자체 내에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라는 캠페인 지속적으로 벌이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더 자주 도서관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내의 주민,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진행해 나가서 실제 도서관이 아주 편하고, 즐거우며, 사랑방 같은 곳을 쓰일 수 있게 확산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4라)

응답자들은 주민들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책을 읽고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은 규모가 작더라도 가까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으니 소규모 도서관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을 시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2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그저 청소년들의 학습장소로 전락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현재보다 각 지역의 도서관의 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구 단위가 아닌 가까운 2~3개동에 하나 정도의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쉽게 찾아갈 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5마)

또한 응답자들은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행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도서관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진부한 분위기를 바꾸고 도서관이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독서 횟수에 따라서 적립식 혜택을 부여하거나 ‘다독왕 시상식’ 등 재미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단위로 독서공간을 만들어 이용시간을 크게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도서관 등 직장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3다)

4.2.5 부모

응답자들은 독서문화의 생활화 및 습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관한 응답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서점에 자주 같이 나가서 읽을 책을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TV보다 책을 더 재미있어하면서 보면 자식들도 독서의 즐거움을 보고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독서 활동에 관한 전문서적이 많으니 부모가 미리 읽고 독서 공부를 먼저 해서 전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독서습관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책을 읽혀야 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대입수능 필독서라 해서 억지로 읽히게 하면 아이들이 독서를 싫어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1가)

“학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부를 강요하고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위를 매깁니다. 교육은 학교에 맞기고 사교육을 자제하여 자녀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나)

응답자들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독서를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 책을 통한 지식 습득과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3다)

“부모님 스스로 책을 자주 읽고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아이에게 롤 모델이 되며 부모님이 책 얘기를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6바)

응답자들은 가정에서의 자녀를 위한 독서교육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초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고, 올바른 독서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학업 성적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인간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독서 교육과 더불어 독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외식 등의 비용을 줄여 도서 구입비 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7사)

“부모가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때로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휴일에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아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집에 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가족이 함께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텔레비전 끄기, 컴퓨터 사용하지 않기, 독서하기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10차)

4.2.6 언론

응답자들은 독서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관한 응답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의 ‘느낌표!’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잡지 등도 독서 내용을 작게 다룰 게 아니라 특집 면으로 크게 다뤄줘야 합니다. 책 수명이 너무 짧아지고 있으므로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 소개를 지양하고 오래된 책이라도 꾸준히 사랑받는 책을 발굴해서 신문지면에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가)

특히 응답자들은 올바른 독서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론의 독서 관련 보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도서소개 및 안내, 작가, 서평 등에 있어서 언론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서 소개 및 서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마)

“언론은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위주의 서평, 광고에서 매우 상업적인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양질의 도서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언론에서 제공해주어야 학부모나 개인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7사)

“언론에서 다양한 도서의 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큰 출판사의 도서 소개의 편식이 심합니다. 출판사 브랜드 네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출판사가 제작한 책 중에는 빛나는 책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묻혀 버립니다. 이는 중소 출판사의 영세화와 출판의욕을 상실케 하여 도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6바)

“방송국은 독서에 관한 캠페인이나 독서관련 교양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신문 잡지는 독서 관련 지면을 늘려서 독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출판사의 책들만 소개하지 말고 분야별 양서를 발굴해서 보도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양서 출판에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10차)

응답자들은 독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언론을 통한 PR, 홍보,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양질의 책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도 정기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언론 기관이나 단체에서 독후감대회를 활성화하여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홍보하면 좋겠습니다.”(3다)

“책 읽기 운동을 언론차원에서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6바)

“방송 매체들은 어린이의 마음을 곱고 아름답게 길러 반듯하게 자라도록 마음을 길러주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독서 관련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9자)

5. 결 론

본 연구 목적은 우리 사회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을 살펴보고, 독서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본 연구는 독서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사회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은 여가시간의 부족(성인의 경우 바쁜 사회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외면) 독서 습관의 일상화 부재(독서의 심리적인 욕구 및 물리적 환경의 열악성), 경쟁 매체의 우월한 지위(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게임 등 다른 매체의 높은 의존도), 양질의 독서 콘텐츠 부재(베스트셀러위주의 획일화된 독서문화), 학교나 부모의 역할 부족(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에 초점을 둠으로써 독서의 생활화, 습관화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 출판관련, 서점, 도서관, 언론의 수행하여야 할 독서활성화 방향은, 공공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 및 법 개선, 콘텐츠 개발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독서문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유통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세제 혜택 등은 물론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에도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탄탄한 물적·인적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식기반시대의 정보제공의 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적인 독서 인프라이다.²⁵⁾ 국민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공공도서관 설치와 장서의 확충이다.²⁶⁾ 또한 도서관에 전문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관 당 4.3명의 전문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다. 또 일본은 1997년에 사서교사 배치

25) 황진구,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 위원회·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07), 63.

26) 황금숙, 앞의 논문(2008).

의무화 정책을 수립하여 12개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국립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였다.²⁷⁾ 한국은 1관 당 11명의 사서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비례로 환산하면 사서직원 1인이 2만 8천명의 이용자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²⁸⁾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등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실질적 운영의 선결과제이다.

셋째, 정부, 출판업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전 국민 독서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수는 많지만 몇몇 대표적인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소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²⁹⁾ 따라서 독서운동이 하나의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전개되었던 독서운동을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출판 관련 단체는 TV의 주요 시간대나 프로그램에서, 신문의 더 많은 지면과 심층적인 코너에서 독서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언론 스스로도 독서 관련 이슈들을 우호적으로 다루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낮은 독서문화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 집단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로 독자들이 왜 독서를 하지 않는가, 이들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출판연구소. 『2006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

27) 이선화,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 독서진흥정책 사례비교,”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8) 황금숙, 앞의 논문(2008), 65.

29) 김봄피, 앞의 논문(2006), 63.

- 구소, 2006.
- 김봄피. “독서운동을 통한 독서진흥에 관한 연구-출판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2006.
- 김재윤, 이권우, 표정훈. “한국 신문의 북 리뷰 지면과 ‘서평.’” 『보도비평 신문의 북리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2.
- 백원근. “매스컴의 독서정보 의제설정과 출판발전 방안-방송 독서프로그램 및 일간지 북섹션을 중심으로.” 『제11회 한국출판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2.
- 백원근.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9 출판문화포럼 자료집』.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국,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독서진흥을 위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09.
- 성동규, 서보운. “독서활성화를 위한 영상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연구-영상미디어화된 출판물의 독서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3호. 서울: 한국출판학회, 2001.
- 손승혜. “글로벌 텔레비전 시대의 수용자 능동성 - 심층 인터뷰를 이용한 한국의 초국가적 위성방송 시청자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6호(2002).
- 이석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전개와 개선방향.” 『도서관문화』 48권 9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 이선화.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 독서진흥정책 사례비교.”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조미아.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 『국회도서관보』 342호. 서울: 국회도서관, 2007.
- 한원경.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현장적합성 검토.” 『도서관문화』 49권 8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書誌學研究 第51輯(2012. 6)

황금숙.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민어린이
청소년도서관, 2006.

황금숙. “신정부의 독서문화진흥정책을 위한 제안.” 『국회도서관보』 5호. 서울:
국회도서관, 2008.

황진구.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경향신문』. 2010년 3월 9일.